

'5·18 모독' 사과 외면한 김진태 방문에 들끓은 광주

5·18구속부상자회와 일부 시민사회 집회 열고 거센 반발



12일 광주 북구 중흥동 자유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사에서 김진태 의원이 당원과 간담회를 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국당원들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가로막으며 5.18 역사 왜곡에 항의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왜곡 공청회를 주최해 논란의 중심에 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시)이 12일 광주에서 거센 항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법원 판결과 관련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듭 주장하고, 5·18 모독에 사죄하지 않으면서 광주를 또 들끓게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 북구 중흥동 자유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는 소식을 접한 5·18구속부상자회와 시민단체 회원 40여 명은 오전 9시 50분께 긴급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사 앞 집회에서 "김진태는 썩 물러가라" "5·18을 왜곡·부정한 자유한국당은 해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한국당원들이 탄 버스·승합차가 당사 주변에 이르렀다. 일부 오월·시민단체 회원과 시민들은 승합차 앞을 가로막으며 항의피켓을 들고 거세게 반발했다. 5·18 유공자와 시민들은 "5·18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발언한 김 의원을 당장 제명·처벌하라고 요구했다. "5·18항쟁을 왜곡하고 희생자에게 용서받지 못할 모독과 망언을 했다"며 한국당 지지자들과 승강기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다른 차량

을 통해 당사 뒤편으로 들어갔다. 당사 안 회의실에서도 일부 시민이 쓰레기를 내던지면서 이수라장이 됐다.

5·18 유공자들은 당사 중앙현관 유리문 밖에서 "우리가 북한군이나 괴물집단으로 보이느냐"며 거센 항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가량 늦춘 오전 10시 40분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반발 여론을 의식한듯 눈을 자주 감거나 굳은 표정을 보였다.

김 의원은 "공청회 참가자들의 주관적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 이뤄질 것"이라며 광주시민과 5·18 모독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또 "5·18 피해자들의 이름을 함께하고 있다.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거 진상을 밝히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유공자의 명단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피해자를 위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약 10여 분만에 간담회를 마치고 수행·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며 당사 밖을 나왔다.

당대표에 도전 중인 김 의원은 전북으로 이동,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신봉우 기자

'訪美' 문 의장-여야 지도부 "북미회담 기대"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곧 있을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하고 우리 70년 분단사가 거의 마감되고 새로운 평화공존체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첫 해라 감회가 깊다"면서 "한반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하지는 데 (여야 대표가)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하고 우리 70년 분단사가 거의 마감되고 새로운 평화공존체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첫 해라 감회가 깊다"면서 "한반도

- 문 의장 "베트남서 민족 명운 걸 담판 될 회담 열려"
- 이해찬 "올해 평화체제 가는 첫 디딤돌 되게 노력"
- 정동영 "정상회담 기점 근진중요·대결시대 넘어야"
- 이성미 "남북관계 변화로 동북아 평화 중심 설 것"
- 김관영 "어렵게 맺은 韓 평화체제 결실 맺게 노력"
- 나경원 "한쪽선 우려 많아...중전선언 선불리 안돼"

현화,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면담.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을 진행한 뒤 동포들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문 의장은 만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우리 민족의 명운을 건 담판이 될 회담이 열린다고 한다"며 "우리가 싸움만 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미국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 힘을 보태고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당신들보다 더욱 절절하다는

전문가들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8000만 민족에게는 생존문제가 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올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이뤄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져서 평화체제로 가는 첫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번 베트남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근진중요와 대결의 시대를 넘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냉전의 낙오자·낙오생 신세를 벗어나 세계 사회 큰 흐름에 합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미국 전문가들이 생각을 바꿔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바라보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 민족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열망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남북관계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북미관계 역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게 될 줄 몰랐다"면서 "그게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변화를 되돌리기 어려워졌다. 변화의 결과는 동북아 평화의 중심으로 우뚝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어떻게 맞은 한반도 평화체제도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3당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모두 대한민국에 평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미북회담에서도 좋은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훈련을 축소시키는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이유로 선불리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핵시설이나 핵물질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있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미단은 12일에는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과 엘리엇 영겔(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을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제임스 인호프(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 등과 연례 면담을 갖질 예정이다.

뉴스스

지역공감·미래창조·정통성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김병준 "5·18 발언, 법치주의 위배"...본인 포함 윤리위 회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하 논란과 관련해 재차 사과하고 자신을 포함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 문제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에게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당 차원의 진상 파악 내용을 보고 받은 김 위원장은 "행사에서 발

표된 내용이 심각했다"라며 "발제된 내용은 특히 역사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이를 넘어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주장임이 명백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비대위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중앙윤리위에서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라며 "공당의 의원이 이런 논의를 판을 깔아주는 행위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저 역시 이런 걸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니 당 윤리위에서는 저의 관리감독 책임도 따져달라"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5·18 관련 당 입장



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입장은 앞으로도 변할 수 없다. 한국당은 5.18과 관련된 진실을 왜곡하거나 정신을 꺾는 행위를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